

책지기 김박사님, 상록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다

:: 소민호_한국과학기술원



김창근 전 실장님

오늘 제 인생에서 소중한 한 분께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체부자유자 목욕봉사를 마치고 양로원으로 제빵봉사를 하기위해 가는 중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 주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것저것 궁금한 얘기를 나누면서 들려오는 내용은 실로 넘쳐나는 에너지가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한심을 느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시간 세월에 숫자로 기억되는 나이뿐이라는 것을!

청소년자원봉사 교육강사, 귀촌성공전략개발 연구소장, 당진시 정미면 오펜리 새마을지도자, 전

국농업기술자협회 당진지회 부회장, 당진농업기술대학 친환경농업과정수로 라는 농촌지도자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에 “이제 완전한 농사꾼이 다 되셨군요.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을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심훈상록수기념사업회 이사과 통일 상록수 사업본부장도 맡고 있다네.” 라고 답을 하시더군요.

이 분이 바로 이번에 소개드릴 우전(宇田) 김창근 실장님이십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셔서 호칭도 많으시지만 KAIST에서 모시면서 실장님이라고 불러드렸던 게 제겐 친근합니다.

한국과학기술대학(KIT) 창립멤버로 KIT도서관의 기틀을 확립하신 김실장님의 인연은 1984년 8월 서울 여의도 KIT 설립 추진단 사무실에서부터 KAIST를 떠나게 되는 2000년까지 줄곧 함께 하였습니다. 실장님을 처음 대한 첫 인상은 굳은 의지의 용장(勇將), 깊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지장(智將)으로 저에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KAIST도서관의 교양분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 KIT 도서관의 토대를 구성하였고, ADD 근무경험을 통하여 과학기술대학 특성화에 알맞은 LC 분류체제를 도입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실장님은 인문학도 출신이면서도 이공계에 박학하여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여러 장비활용에도 능통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마이크로필름 촬영기, 복제기, 리더기 등과 인쇄제본시설 장비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특히 1980년대의 컴퓨터 활용능력 초창기시절 과학기술전문도서관에 적합한 국내대학 최초의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중이던 KITALS시스템을 1988년 대전(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 개최된 제2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시연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성우 뱀치는 목소리로 직접 나레이터를 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도서관전산화에 대한 개발의지의 DNA를 남겨주시어 지금도 KAIST에서는 패키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도서관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1975년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정보실에서 도서관계에 첫 발을 내 딛으신 이후 1984년부터 16년간 KAIST 도서관에서 재직하시고, 잠시 벤처기업을 운영하시다가 2002년부터 인하대 도서관 부관장님으로 6년간 재직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이후 연변대학교 초빙교수를 끝으로 도서관계를 떠나 뜻한 바 있어 귀농을 결정 오늘에 이르셨습니다.

KSLA 전신인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과학기술도서종합목록 30여권의 전집을 발간하여 협의회 기금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간의 협력 활동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신 흔적은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논문 제목(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계의 선배님들로부터 매우 큰 신임을 받으셨던 김실장님은 문헌정보전문가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무척 노력하셨던 집념적인 학술활동과 경영활동으로 무형에서 유형의 도서관을 세 번이나 참여하여 이루신 업적이 있습니다. 'KIT 도서관, KAIST 과학도서관,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이 그 좋은 예입니다. 건물만 덩그러리게 되어 있는 공간에 공간 구성도, 가구배치도 등 하나에서 열까지 직접 모든 것을 세심히 챙기시며 목표 기일까지 계획대로 빈틈없이 추진하시는 실행력은 저로서는 감히 쫓아 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김실장님은 이외에도 다방면의 소질이 많았었는데, KIT 교가제작에도 참여하셨고, 대학시절 통키타가수로 활동했던 끼로 말미암아 노래방을 접수하셨던 실장님은 KIT시절 연말송년회 부서별 장기자랑 대항전에서 실장님의 진두지휘로 2년 연속 대상을 거머쥔 도서관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능한 선배님 덕분에 KAIST 도서관 위상에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계를 떠나서는 이곳에 미련두시지 않고, 농사에 전념하시는 모습은 저희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정표로 모범적인 은퇴생활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